

38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출품작

일시 : 1997년 10월 15일
장소 : 익산 공설운동장

바구니 훼싸움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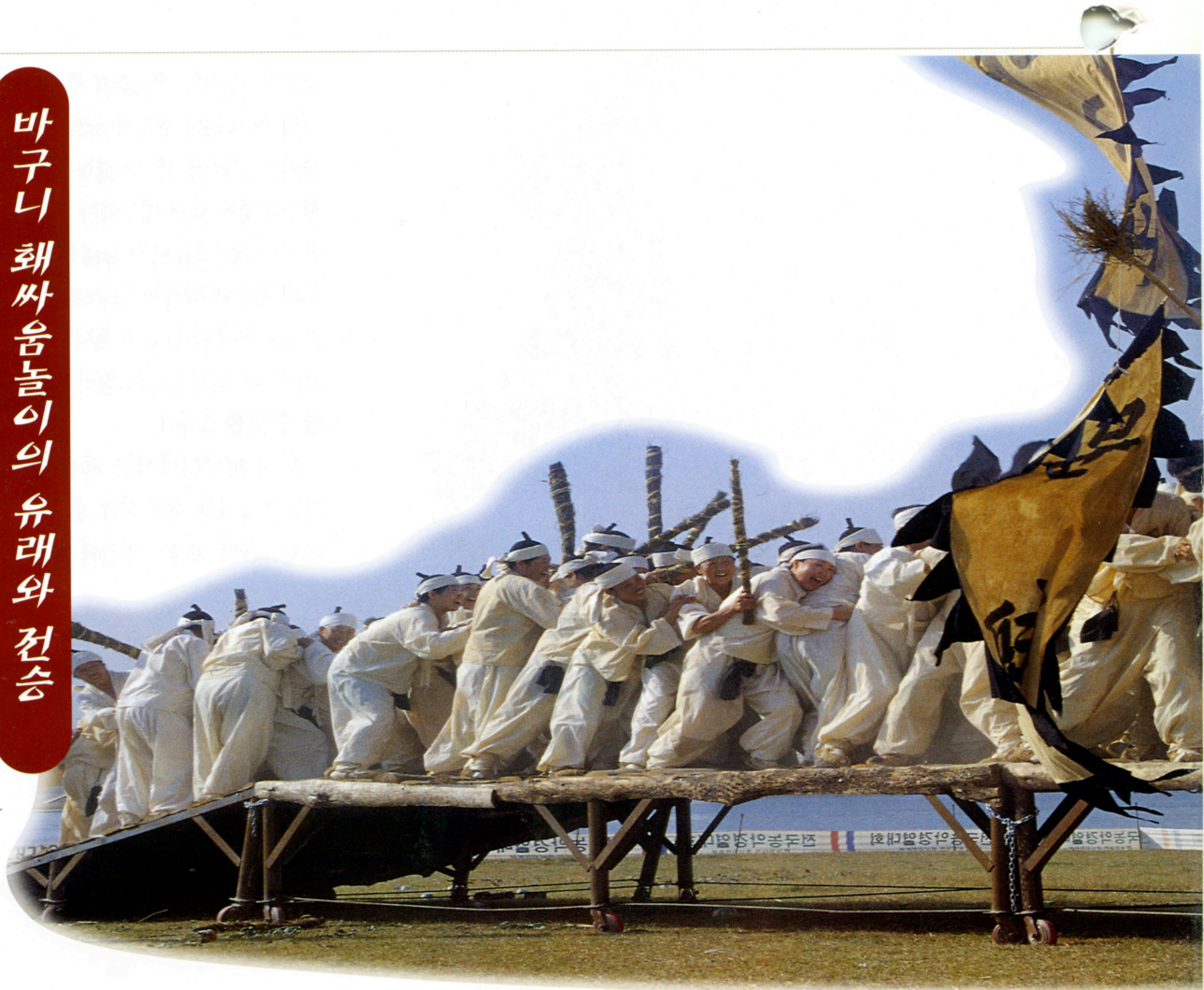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바구니 채싸움놀이

대전광역시

바구니
해싸움놀이의
유래와
전승



4

바구니 해싸움놀이가 전승되고 있는 유성구 봉산동 바구니는 한밭의 젓줄인 갑천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우리나라의 여느 농촌이 그러하듯이 바구니는 '배산임수'의 지세에 자리잡고 있다. 즉 마을 뒤로는 오봉산과 두루봉이 우뚝 서서 마을의 주산을 형성하고, 마을 앞에는 시알들(새알들), 관평들, 신대들이 넓게 펼쳐져 풍요로운 한밭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한복판으로 남쪽에서 발원

한 거대한 갑천의 물줄기가 금강을 향해 유유히 흘러가고 있다.

바구니란 이름은 마을의 지세가 바구니처럼 움푹 들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로 인해 이 마을은 예로부터 '떠나가는 배(行舟形)'의 형국에 비정되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풍수에서 행주형 지세란 사람과 물건을 가득 싣고 장차 떠나려고 하는 배의 형상을 말한다. 따라서 배에는 항상 물산(物山)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런 지세에 동네가 들어서면 마을의 발전과 번창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그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바구니는 예로부터 금반하엽형(金盤荷葉形)의 명당이 있어 만대에 걸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지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 예언은 크게 빛나가지 않아 바구니는 일찍이 호구수 220여 호를 웃도는 대촌으로서의 당당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고, 최근에는 수천 호가 모여 사는 도심으로 성장했다.

이와 같은 도시화의 급격한 격랑속에서도 바구니는 민속문화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목신제와 거리제를 어김없이 지내고 있으며, 이 마을 전통문화의 심원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민속자료가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목신제의 대상신인 둥구나무(느티나무)는 그 둘레가 8.2m, 수령이 700~800년을 헤아리는 고목으로, 바구니를 상징하는 수호신으로 치성을 받고 있다. 그리하여 바구니에서는 둥구나무의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라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지키고 있으며, 이 나무의

잎이 피는 것을 보고서 한해 농사의 풍년을 점치기도 했다. 즉 둥구나무의 잎이 일시에 피어나면 그 해는 풍년이 들고, 반대로 나뭇잎이 여기저기서 속도가 다르게 피어나면 흉년이 든다고 한다. 또 둥구나무의 맨 위부터 잎이 피면 풍년이 들고 반대로 아래쪽에서부터 잎이 피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 것이다.

바구니 해싸움놀이가 유래·전승되는 배경에는 이와 같이 바구니의 수호신이자 마을문화의 상징물인 둥구나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한 마을의 공동체신앙과 민속놀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한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구니 해싸움놀이의 유래는 이 마을의 유구한 역사와 둥구나무의 수령으로 미루어 보건대 적어도 조선전기부터 성행한 민속놀이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바구니에서는 목신제 및 해싸움놀이의 보존회가 조직되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싸움놀이의 특징 및 발글의의



바구니 해싸움(햇불싸움) 놀이는 충청지역 정월 대보름 민속의 특징과 대동놀이의 역동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놀이이다.

일찍이 홍석모가 『동국세시기』에서 “충청도에서는 정월 대보름날 해싸움을 하여 그 승부로 한 해의 풍흉을 점쳤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해싸움은 특히 충청지역에서 성행했던 상원(上元) 민속놀이의 전형을 이룬다. 이러한 해싸움놀이의 건강한 전승을 통해 과거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씩씩한 기상을 함양하고 용맹성을 키워나갔던 것이다.

바구니 해싸움놀이는 목신제의 준비절차인 ① 용기 세우기, ② 마을의 제액초복(制厄招福)을 기원하는 목신제, ③ 거리제, ④ 가정의 액운을 물리치는 낙화치기, ⑤ 해싸움 전초전의 성격을 띤 쥐불놀이, ⑥ 바구니와 문평이 마을의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해싸움, ⑦ 두 마을이 해싸움의 앙금을 풀고 화합을 다지는 대동 풍물굿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이 바구니 해싸움놀이는 정월 대보름의 동제(洞祭)와 액막이놀이 그리고 집단놀이의 전통을 꾸밈없이 보여주고 있다.

해싸움놀이의 구성은 여느 고장

의 햇불싸움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여기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낙화치기’라는 독특한 액막이 풍습은 바구니만의 소중한 민속자산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바구니 해싸움놀이는 조선시대 널리 행해졌던 돌싸움(石戰)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동성과 전투성이 한층 돋보이는 민속놀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바구니 해싸움놀이를 통해 민속놀이에 담겨있는 진취적인 기상을 되찾고, 상부상조의 협동심과 공동체적 신명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바구니에서는 목신제를 지내기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생기복덕에 맞는 정갈한 사람으로 제관을 선정하고, 풍물패들은 집집마다 걸립을 돌아 고목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염출한다.

목신제를 지내기 일주일 전쯤 바구니의 모든 주민들은 용기를 앞세우고 제관의 집으로 간다. 마

을을 상징하는 깃발인 용기를 제관의 집에 세우기 위해서다. 풍물패들의 흥겨운 가락이 온 마을을 울리는 가운데 용기를 받아든 제관은 자기집 상기등에 용기를 묶어 세운다. 이로써 목신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이즈음 마을의 신목인 느티나무 앞으로 가서 금줄을 치고 황토를 퍼서 행여 깃들지도 모를 부정

물리친다. 이 날부터 주민들은 가축의 도살을 금하고 굶은 일을 삼가는 등 목신제를 마치는 날까지 엄한 금기가 수반된다.

목신제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느티나무 앞으로 가서 목신제를 지낸다. 목신제는 먼저 제물을 진설한 다음 제관이 술을 한잔 올린다. 그리고 축관이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축문을 읽는다.

바구니 목신제의 특징은 다른 마을의 동제처럼 초헌, 이헌, 종헌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축을 읽은

뒤 주민 일동이 한번 절을 하는 것으로 의식을 마친다. 그것은 목신이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한번만 절을 하는 것이다.

목신제를 마치면 금년 한 해도 마을에 액운이 들지 않고 집집마다 무병장수하기를 기원하는 '만동소지(마을소지)'와 '대주소지'를 올린다.

목신제 축문

維歲次丁丑正月干支朔十四日戌時

바구니 洞民代表 全元錫 敢昭告于

古木之神 伏惟尊神 代天宣化 鎮我一方

殺民有造 使安而樂 惟神之使 使飽而暖

惟神之佑 道民至德 加民惠澤 一里洞屬

惟月之正 牲酒雖薄 宴出微誠 惟神降格

庶鑑愚衷 望垂默佑 克有始終 上 饗



만동소지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오라

바구니 만동소지 올립니다

주민 모두의 정성으로 차렸으니

소례를 대례로 받으시고

올 정축년 한해에도

마을의 평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잘 보살피 주십시오



대주소지

이 소지는 다른 소지가 아니오라

가가호호 대주소지의 소지 올립니다

목신께서는 부디 흠양하시고

올 정축년 한해에도

농사풍년들게 하여 주시옵고

삼재팔란 관재구설 재앙막아

무사태평하도록 잘 보살피 주십시오



거리제



목신제가 끝나기를 기다리던 아낙네들은 나루터로 나아가 거리제를 지낸다.

집집마다 백설기며 포 등 조출한 제물을 준비하여 '소지'를 올리며 가정에 액운이 없기를 기원한다. 특히 바구니는 지리적인 입지상 큰 냇물을 끼고 있어, 예전에는 장을 보거나 자녀들의 등하교길에 반드시 배를 이용해야 했으므로, 물가에서 거리제를 지내며 안전사고가 없기를 빈다.

낙화(落火)치기



낙화치기란 참숯과 왕 소금을 곱게 갈아 길다란 자루에 넣은 다음 그것을 불태움으로써 액운을 물리치는 의식을 말한다.

거리제를 마치고 밤이 으스스해질 무렵, 제관집에서는 집안에 있는 감나무에 숯과 소금을 넣은 자루를 길게 매달고 그 밑에다 불을 지핀다. 그러면 숯불이 위로 타올라가

면서 자루 속의 소금이 '탁탁' 소리를 내며 튀게 된다. 어둠속에서 소금이 튀는 소리와 검붉은 불뚱(낙화)이 떨어지는 모습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어 장관을 연출한다.

낙화치기는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집안에 깃든 재액(災厄)을 물리치기 위한 종교적인 의식으로써, 낙화(落火)와 함께 모든 액운이 소멸될 것이라는 믿음이 내재

되어 있다.



쥐불놀이



12

쥐불놀이는 해싸움의 전초전 성격을 띤다.

시냇물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문평마을에서는 쥐불놀이에 열을 올리며 바구니마을에 시비 걸 틈을 엿본다. 삼삼오오 햇불을 든 문평마을의 해꾼들은 바구니로 통하는 다리를 어슬렁거리며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내 나무다리를 건너

가 햇불을 던지며 약을 올린다. 이때 목신제를 마치고 음복을 하고 있던 바구니 청·장년들이 달려나와 문평마을 해꾼들을 물리친다.



바구니에 혼쫓이 난 문평에서는 햇불을 들고 다시 바구니로 진격한다. 조금전 일방적으로 당한 수모를 설욕하기 위해서다. 이에 질세라 바구니에서도 해꾼들이 총동원되어 시냇가로 몰려간다. 외길 나무다리에서 맞닥뜨린 두 마을간에는 바야흐로 격렬한 기세로 해싸움이 벌어진다.

해싸움은 호구가 엇비슷한 바구니와 문평마을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동시에 해싸움에서 이겨야 그 해 운수가 길하고 지는 마을은 액운을 몰고간다고 하여 밤이 늦도록 머리가 깨지고 옷이 찢어지고 온몸에 화상을 입는 부상자가 속출할 만큼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뿐만 아니라 감정이 격해진 두 마을의 해싸움은 돌싸움(石戰)이

나 육박전으로 비화되어 자못 험악한 상황으로 치달는다.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해싸움에서 이긴 바구니는 상대편의 햇대며 햇불 따위를 빼앗아 한바탕 빗장을 지르며 득의만만하게 마을로 돌아온다.



목신제를 주관한 바구니의 제관은 나무다리를 건너 문평으로 간다. 그리고 싸움에 패해 망연자실해 있는 상대마을 해꾼들을 위로하고 화해를 청한다. 문평에서도 이 제의를 흔쾌하게 받아들여 해꾼들을 이끌고 바구니로 향한다.

이로써 두 마을은 화싸움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을 말끔히 씻고

걸판진 풍물소리에 어우러져 새롭게 다져진 화합의 마음으로 정월 대보름을 맞이한다.

구성현황 및 출연자



구분	성명	성별	연령
용기	김병호	남	40
보조	김주덕	남	40
기수	홍성규	남	39
	윤광수	남	41
제관	최종희	남	62
	권영우	남	61
	오현수	남	62
	최호경	남	38
축관	정조희	남	55
소지	박선용	남	47
영기	조재형	남	46
	김정구	남	46
마을기	김홍옥	남	43
	이영성	남	42
	황홍만	남	40
	박정우	남	43
	윤석재	남	34
	오희석	남	43
	임광현	남	34
	정택근	남	38
풍물꾼	박헌영	남	36
	구본환	남	34

구분	성명	성별	연령
풍물꾼	양해석	남	36
	이주우	남	37
	최석환	남	47
	최재희	여	39
	신창봉	남	42
	이정우	남	37
	김명자	여	44
	라명진	여	40
	윤봉자	여	41
	김명옥	여	41
	정순화	여	48
	장필자	여	41
	한대수	남	42
	김광기	남	43
	김성구	남	54
	이종희	남	45
	강석주	남	45
	서승달	남	46
	이봉식	남	51
	심순애	여	47
강평순	여	47	
박순섭	여	47	



구분	성명	성별	연령
풍물꾼	김명배	여	47
	전병례	여	50
	김금숙	여	41
	김현구	남	39
	김명석	남	42
	염천균	남	45
	이경선	여	44
	김순자	여	48
	김복선	여	48
	정유자	여	48
	윤용구	남	34
	염인균	남	31
	서도진	남	40
	김사은	여	39
	거리제	윤순동	여
정경순		여	67
신영이		여	67
박노순		여	69
윤귀선		여	61
김영남		여	72
권남순		여	60
윤순이		여	70
전태임		여	66
배간난		여	68
김복남		여	65
손복순		여	66
임금자		여	65
사복례		여	63
김정남		여	66
이순자		여	59
김언년		여	62
오만순		여	55
김영월		여	65

구분	성명	성별	연령
거리제	이상분	여	66
	홍점례	여	65
낙화치기	강복순	여	63
	김명순	여	67
취불놀이	황기용	남	13
	강전우	남	13
	윤성식	남	13
	서윤석	남	13
	한인규	남	13
	김홍주	남	13
	이민희	남	13
	라기문	남	13
	라기원	남	13
	진두한	남	13
바구니해꾼	김윤환	남	13
	김상겸	남	56
	윤여창	남	60
	이태훈	남	50
	윤영환	남	60
	손순식	남	60
	이규영	남	58
	강복수	남	63
	김성규	남	60
	송기수	남	40
	한영철	남	40
	윤창수	남	40
	김세구	남	60
서범균	남	40	
오용우	남	46	
임병준	남	50	
유창현	남	50	
최영철	남	55	
김현식	남	55	



구분	성명	성별	연령
바구니혜꾼	김홍경	남	55
	박경식	남	44
	최종언	남	50
	심석진	남	42
	박수남	남	40
	손준기	남	41
	한계남	남	39
	김영덕	남	44
	최석환	남	47
	최명환	남	50
	오안립	남	36
	한상연	남	39
	정윤기	남	35
	김우석	남	36
	편규태	남	36
	백종찬	남	40
	서주원	남	35
	이근창	남	38
	최진승	남	39
	김홍식	남	41
	최동진	남	57
	조승원	남	44
	김경호	남	38
	우찬완	남	54
	서재원	남	55
	김종태	남	39
	박준엽	남	43
	김주덕	남	40
	홍성규	남	39
	정의철	남	40
권성남	남	39	
이준원	남	170	
강희주	남	63	

구분	성명	성별	연령	
바구니혜꾼	하상우	남	44	
	서용창	남	36	
	김선웅	남	50	
	이명환	남	40	
	오익제	남	39	
	모영배	남	61	
	한명수	남	59	
	최재연	남	40	
	곽성환	남	38	
	문평혜꾼	김지식	남	41
		고한두	남	46
		손대근	남	49
		이봉우	남	45
		이상후	남	44
		성중모	남	45
오진규		남	51	
이상민		남	48	
양병춘		남	40	
강진구		남	49	
민용성		남	47	
김기상		남	43	
신재균		남	44	
이진우		남	45	
황광희		남	48	
이대우	남	46		
노계호	남	44		
여준수	남	41		
강용환	남	43		
우건희	남	40		
최석원	남	48		
최부명	남	49		
전택수	남	55		
이승준	남	55		



구분	성명	성별	연령
문평해군	한태수	남	40
	김수철	남	40
	이찬규	남	49
	박상문	남	41
	박영상	남	43
	김정남	남	47
	장원진	남	42
	홍석원	남	40
	최희수	남	45
	박진수	남	37
	신은수	남	38
	박찬규	남	37
	이영덕	남	53
	안 삼	남	37
	윤정원	남	39
	박창순	남	36
	배정호	남	37
	석주봉	남	41
	박진수	남	40
	신용선	남	40
	서동원	남	40
	신동명	남	40
	이영수	남	39
	김건용	남	36
	양창준	남	37
	최정섭	남	38
	박대규	남	34
	이충일	남	35
	안병열	남	38
	현일갑	남	44
	황인성	남	40
	서도진	남	40
	김충국	남	44

구분	성명	성별	연령
문평해군	이기창	남	40
	이규섭	남	44
	이계영	남	40
	손대근	남	49
	민용기	남	44
	박순만	남	53
	빅성만	남	58
	양익석	남	59
	이거성	남	60
	손상우	남	63
	김홍민	남	62
	이종우	남	63
	이락기	남	65
지계	신상용	남	40
	전기철	남	36
황토흙	남경구	남	41
소품	손숙현	여	59
	김인순	여	58
	황연옥	여	56
	서순자	여	52
	염재분	여	49
	이영순	여	44
	장진숙	여	40
송금순	여	42	

바구니 채싸움놀이

- 전 승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동 바구니 마을
- 출연인원 : 230명
- 발굴·구성 : 강성복(민속연구가)
- 고 증 : 송백헌(충남대 국문과 교수)
황인덕(충남대 국문과 교수)
전원석(해싸움놀이 보존회장)
장덕수(유성문화원 사무국장)
권영준(해싸움놀이 보존회 전회장)
권영우(해싸움놀이 보존회 전회장)
- 기획연출 : 김재범(전 놀미국악원 원장)
- 지 도 : 박헌용(농악인)
- 진 행 : 김명진(해싸움놀이 총무)



바구니 화싸움놀이



대전광역시